

청소년 가출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 : 손베리 이론의 부분 검증

전신현* · 김원경* · 황성현*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가출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된 가족·부모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각 시기별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전국의 초등학생 2,788명, 중학생 3,504명, 고등학생 3,458명 총 9,750명을 표본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초기와 중기까지는 가족·부모요인이 비행친구변인보다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더 잘 설명했으며 후기 청소년기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이 종속변인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어떤 일정한 청소년기 시점에서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파악한 이전 선행연구와는 달리 전체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가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청소년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가출, 손베리, 상호작용이론, 부모요인, 비행친구요인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I. 서 론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인 청소년가출은 현재 청소년비행의 관문(gateway)이 될 정도로 청소년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청소년의 12.8%가 가출경험이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 무려 73.8%가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 이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 2009년 한국아동·청소년 가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8.1%가 가출경험이 있으며, 고등학생의 52%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1/2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금도 가출충동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실제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청소년 가출 그 자체는 심각한 비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절도, 문란한 성관계, 금품갈취와 폭행 등과 같은 중비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가출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예컨대, 민가영(2009)의 청소년 성매매 연구에 의하면, 질적 연구대상이 된 성매매 여자청소년 전부 다 성매매 전에 이미 가출한 경력이 있으며, 가출횟수가 빈번해지고 가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가출은 청소년 자신의 자살,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청소년가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청소년가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청소년가출에 대한 연구는 약 60여건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청소년가출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연구의 초반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정경은·문성호, 2008).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가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자신의 개인, 가정, 학교 및 친구집단 등을 중심으로 이런 요인들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김동기·홍세희, 2007; 박명숙, 2006; 박민선, 2008; 조학래, 2004).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횡단적 연구가 대부분으로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되는 전체 청소년기를 관통하는 종단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요인은 중학교와 고등학

교로 이어지는 중기와 후기 청소년들의 가출요인과는 분명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출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시기 또는 특정한 청소년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는 청소년기 전체에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없는 방법론적 문제를 노출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고 각 시기별로 청소년가출의 올바른 접근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되는 전체 청소년기 중에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로 청소년가출의 주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선행연구결과처럼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전체 청소년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어떤 특정한 요인이 전체 청소년기를 관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새롭게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가출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측면인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박명숙, 2006), 가정 또는 부모측면과 친구집단의 측면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김준호·박정선, 1993). 하지만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어떤 측면으로 조명하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당히 복잡한 복합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크게 가족요인과 또래집단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일부의 청소년들은 도저히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가정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소년들은 가정 밖 비행친구집단의 유혹이 강해 스스로 가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한편 가족요인과 또래집단요인이 강하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긴장요인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자존감과 자아통제감을 가지고 있다면 가출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세 가지 측면인 가족요인과 또래집단

요인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과 긴장요인 등으로 나누어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요인으로는 가족 내의 역기능적 문제, 부모의 학대, 부모애착이나 부모방임 등이 주요인이 된다. 김동기·홍세희(2007)는 아버지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부모와의 애착 결핍 등이 가출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또래집단요인으로는 비행친구집단과의 접촉이 주된 요인이 된다. 박민선(2008)에 의하면 비행또래의 수가 증가하면 가출의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가출횟수의 증가는 청소년의 비행또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비행또래선행론을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의 비행또래의 영향이 청소년자신의 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이현지, 2005; 황성현, 2006; 2008; 2009; Hwang & Akers, 2006).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문제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낮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있다. 배문조·전귀연(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을 연구한 결과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 우울 및 충동성과 같은 긴장요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긴장요인이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아상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동기·홍세희, 2007; 조학래, 2004; 한상철, 2001). 결론적으로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어떤 측면에서 조망하든 간에 크게 청소년 가정 내의 문제(가족유대, 부모학대 등)가 중심이 되는 가족요인과 가정 밖의 또래집단요인(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가정 내의 가족요인과 가정 밖의 또래집단요인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자신의 긴장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한 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청소년기 한 시점을 중심으로 위의 요인들을 적용했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기 각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출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각 시기별로 가출의 원인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청소년비행 이론으로는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론이 존재한다.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은 비행의 원인이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했다(Thornberry, 1987).

손베리의 주장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인 청소년 초기(11-13세)는 아동이 부모의 태도나 가치에 주로 의존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부모애착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청소년 중기(15-16세)에는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지가 가정에서 학교와 친구집단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청소년들도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에게 의존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에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18-20세)에는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소멸되며 그 자리에 친구집단의 영향력이 대신 차지한다는 것이다.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을 적용하여 청소년가출을 설명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손베리와 그의 동료들의 1991년 연구와 이들의 3년 후 연구는 상호작용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Thornberry et al., 1991; 1994). 손베리의 연구 외에 상호작용론을 적용한 연구로는 장(Jang, 1999)의 연구가 존재한다. 장(Jang, 1999)에 의하면, 부모애착의 효과는 1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꾸준히 유지된 반면,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중간 청소년기에 상승한 후 하강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경험적 연구는 이철(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철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지위비행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꾸준히 나타났으며, 중비행에서는 아동기에 강하다가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가 지극히 부족한 이유는 이론의 특성상 이 이론을 검증할 경험적 자료는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히 축적된 종단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료 때문에 손베리 자신 또한 상호작용론을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밝힐 10년 이상의 종단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베리와 그 외의 연구에서처럼 상호작용론을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비록 10년 이상 일련의 청소년 집단을 꾸준히 추적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2009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청소년가출에 대한 연구의 표본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기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을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생부터 고등학생 모두를 표본대상으로 삼은 2009년의 청소년 가출 자료를 중심으로 청

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각 시기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손베리의 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지만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가정의 영향력이 청소년 비행에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지만, 중기와 후기로 넘어오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 부모요인(부모방임과 부모학대)과 가족요인(가족유대)이 초기 청소년기에 아동들의 가출비행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중기와 후기로 넘어 오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연구가설 2 : 가출친구가 청소년 자신의 가출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청소년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초기보다는 중기와 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강해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자료는 2009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 4·6학년, 중학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 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8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 설문조사 방식으로 2,788명의 초등학생 설문자료와 3,504명의 중학생, 그리고 3,458명의 고등학생 설문자료를 각 각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11세-13세)의 가출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설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중기 청소년기(15-16세)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설문자료를, 후기

청소년기(18세-20세)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상호작용이론에서 손베리는 14세와 17세를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중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14세는 중기 청소년에, 17세는 후기 청소년기에 포함시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인 및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가출경험을 묻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출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로 질문되었으며, 만약 있다면 몇 회의 가출경험이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출경험 횟수가 아닌 가출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첫째, 청소년가출은 다른 비행과 달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가출로 심각한 청소년 비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출유무에 관한 질문에서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88명의 응답자 중 총 가출 횟수의 질문에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학생 11명과 전혀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41명이나 되므로 총 52명을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이 연구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가족과 부모요인 그리고 비행친구요인을 사용하였다. 가족과 부모요인 중에서 가족요인으로서는 가족유대요인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가족유대 척도는 “우리 가족은 서로 도와준다.” 등을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alpha=.916$). 부모요인은 부모학대변인과 부모방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학대 척도는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등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cronbach's $\alpha=.849$), 부모방임 척도는 “부모님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신다.” 등을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alpha=.822$). 비행친구 요인은 경비행친구 척도와 중비행친구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비행친구 척도는 “나의 친한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1)담배피우기, 2)술마시기, 3)무단결석, 4)성관계, 등 4가지 비행을 포함하고 있다(박현수·김준호, 2008). 중비행친구 척도에는 1)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폭행), 2)패싸움, 3)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뜨기), 4)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절도), 5)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

롱하기, 6)남을 협박하기, 7)다른 친구 따돌림(왕따)시키기 등 7가지 비행을 포함한다(박현수·김준호, 2008). 경비행과 중비행을 포함한 비행친구요인의 문항내적합치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6이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변인과 불안, 우울과 같은 긴장요인은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자존감변인은 긍정적 자존감과 부정적 자존감변인 모두 다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존감 척도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cronbach's α =.767), 부정적 자존감 척도는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α =.735). 긴장요인은 “외롭다고 느낀다.”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Agnew, 1992; 2001)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계수)는 .880이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또 다른 통제변인으로서는 성별과 가족유형변인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성별과 가족유형변인은 가출요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통제변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가족유형변인은 크게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인들의 각 문항 간 신뢰도를 추정하는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 계수)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적합치도 계수는 0~1의 범위를 가지며 계수가 .090 이상이 되어야 신뢰롭다고 하며 그 값이 적어도 .060은 넘어야 만족할만한 수준이 된다.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독립변인들의 신뢰도계수는 .0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요인의 신뢰도계수가 .9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통제변인들(성별, 가족유형, 자존감변인, 긴장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부모요인과 비행친구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이 회귀방정식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족·부모요인과 비행친구요인이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얼마만큼 설명하며, 각 각의 독립변인들의 베타계수가 종속변인에 95%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했다. 두 번째로 가족·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을 따로 분리하여 청소년 가출행위에 회귀시킴으로써 두 가지 독립변인 각 각 단독으로 어느 정도 종속변인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회귀방정식을 통해 연구가설 1과 2의 지지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즉 가족·부모요인이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에 강한 영향

력을 미치다가 중기와 후기로 넘어 오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지(연구 가설 1을 검증), 아니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상관없이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만 초기보다는 중기와 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강해지는지(연구가설 2를 검증)를 파악하였다. <표 2>에서 <표 5>까지의 회귀모델에서 제시된 베타계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베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빈도분석결과

청소년 가출 행위를 분석하기에 앞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청소년 가출빈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 가족유형별로 나누어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 성별, 가족유형별 초, 중, 고등학생들의 가출경험 빈도표

		전 체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788(8.1%)	86(3.1%)	284(8.1%)	418(12.1%)
성 별	남 자	507(10.2%)	66(4.7%)	181(9.7%)	260(15.1%)
	여 자	281(5.9%)	20(1.5%)	103(6.3%)	158(9.1%)
가족유형	양부모	609(7.3%)	69(2.8%)	212(7.0%)	328(11.2%)
	한부모	117(13.2%)	8(4.3%)	47(14.9%)	62(16.1%)

<표 1>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8.1%는 지금까지 한번 이상의 가출경험이 있으며, 청소년 초기(3.1%)보다는 중기(8.1%)와 후기(12.1%)로 갈수록 가출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청소년들의 가출비율은 10.2%로 여자청소년들(5.9%)보다 약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도 양부모가족(7.3%)보다 한부모가족(13.2%)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로 제시되지

는 않았지만, 전체 표본 9,750명 중에서 양부모가족이 90.4%(8,375명)로 한부모가족 9.6%(88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가족유형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족의 청소년들보다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약 2배정도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성별비교에서 청소년 초기 남자청소년들(4.7%)은 여자청소년들(1.5%)보다 약 3배정도 가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기와 후기 남녀 성별비교에서는 그 성별 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비교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초기와 중기 청소년들은(13.2%) 양부모가족 청소년들보다(7.3%) 약 두 배 정도 더 많이 가출한 경험이 있지만 후기에서는 그 비율이 각 각 16.1%와 11.2%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체 청소년 가출에 대한 통합 및 부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1(통합)	Model 2(부모)	Model 3(친구)
성 별	.058***		
가족유형	.036***		
자존감	.019		
긴장요인	.048***		
가족유대	-.082***	-.112***	
부모학대	.090***	.096***	
부모방임	.038***	.067***	
경비행친구	.227***		.266***
중비행친구	-.082***		-.094***
결정계수(R^2)	.075	.037	.043
사 례 수(N)	9,106명	9,749명	9,749명

*** $p < .001$, ** $p < .01$, * $p < .05$

<표 2>는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들을 다 포함한 전체 청소년들의 가출행위에 대한 통합회귀방정식(Model 1)과 가족·부모요인(Model 2)과 비행친구요인(Model 3)으로 나눈 부분 회귀방정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odel 1의 분석결과 자존감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들과 통제변인들은 가출행위를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한부모가정일수록, 청소년 자신의 긴장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유대가 약할수록, 부모학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방

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 자신이 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중에서 경비행친구가 청소년 가출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학대 > 중비행친구, 가족유대 >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의 영향력 중에서는 경비행친구의 베타계수가 중비행친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비행에 속하는 청소년가출은 중비행친구보다는 경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자신이 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통합회귀모델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들과 가족·부모요인 모두 다 청소년 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Model 2와 3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 각 각이 청소년 가출에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결정계수의 비교에서도 친구요인은 4.3%로 부모요인 3.7%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청소년 가출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초기 청소년 가출에 대한 통합 및 부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1(통합)	Model 2(부모)	Model 3(친구)
성 별	.091***		
가족유형	.004		
자존감	-.021		
긴장요인	.057**		
가족유대	-.034	-.071***	
부모학대	.061**	.110***	
부모방임	-.017	-.004	
경비행친구	.005		-.0198
중비행친구	.119***		.149***
결정계수(R^2)	.041	.020	.018
사 례 수(N)	2,547명	2,787명	2,787명

*** $p < .001$, ** $p < .01$, * $p < .05$

<표 3>에서 <표 5>까지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각 각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초기 청소년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들만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의 통합회귀방정식 분석결과 성별, 긴장요인, 부모학대, 중

비행친구변인은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청소년가출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중비행친구 변인이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 부모학대 > 긴장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학대변인만, 친구요인 중에서는 중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만 청소년가출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유대나 부모방임 그리고 경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은 초기청소년 가출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의 부모요인 중에서는 가족유대와 부모학대변인이 종속변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유대변인은 다른 통제변인과 친구변인들이 다 포함된 Model 1에서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가족과의 유대가 강한 초기 청소년들은 다른 독립과 통제요인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Model 3의 친구요인 회귀방정식에서는 통합회귀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중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 가출을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부모와 친구요인들이 각 각 얼마만큼 설명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요인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가 .020으로 친구요인 회귀모델의 결정계수 .01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요인이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의 가출비행에 친구요인들보다는 더 강하다는 연구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중기 청소년 가출에 대한 통합 및 부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1(통합)	Model 2(부모)	Model 3(친구)
성 별	.064***		
가족유형	.058**		
자존감	.036		
긴장요인	.086***		
가족유대	-.084***	-.106***	
부모학대	.077***	.079***	
부모방임	.082***	.113***	
경비행 친구	.184***		.219***
중비행 친구	-.091**		-.099**
결정계수(R^2)	.065	.043	.021
사 례 수(N)	3,281명	3,503명	3,503명

*** p < .001, ** p < .01, * p < .05

〈표 4〉는 중기 청소년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이다. 통합회귀방정식 Model 1의 분석결과 자존감변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과 통제변인들이 청소년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이 중기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비행친구변인 > 긴장요인 > 가족유대 > 부모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부모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 모두가 중기 청소년가출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 설명력도 통제변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와 Model 3에서 부모변인들과 친구변인 양쪽 모두 중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부모변인 회귀방정식 결정계수가 .043으로 친구변인 결정계수 .0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표 3〉의 초기 청소년들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중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은 초기보다 중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3〉과 〈표 4〉의 Model 1의 통합회귀방정식 비교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청소년들의 통합회귀방정식에서 가족유대, 부모방임, 경비행친구변인은 통계적으로 청소년가출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들의 회귀방정식에서는 이 3 가지 독립변인들이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유추하건데,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는 이 연구에서 설정하지 못한 다른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부모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은 중기청소년기부터 청소년가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의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1과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부모요인과 친구집단 변인이 초기와 중기청소년들의 가출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는 연구가설 1과 2를 지지하지만, 가족·부모요인이 초기에는 강하게 미치다가 중기로 넘어 오면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연구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친구변인들이 초기보다는 중기로 넘어 오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연구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후기 청소년 가출에 대한 통합 및 부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1(통합)	Model 2(부모)	Model 3(친구)
성 별	.024		
가족유형	.019		
자존감	.023		
긴장요인	.005		
가족유대	-.073***	-.088***	
부모학대	.088***	.082***	
부모방임	.068***	.110***	
경비행 친구	.271***		.327***
중비행 친구	-.082***		-.111***
결정계수(R^2)	.101	.042	.073
사 례 수(N)	3,276명	3,457명	3,457명

*** $p < .001$, ** $p < .01$, * $p < .05$

<표 5>는 후기 청소년들 즉,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이다. 통합회귀방정식 Model 1의 분석결과 가족·부모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요인 양쪽 다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청소년 가출을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변인인 성별과 가족유형, 자존감, 긴장요인은 청소년 가출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후기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가장 설명하는 변인은 경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학대 > 중비행친구 > 가족유대 > 부모방임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각 각의 회귀방정식 모델인 Model 2와 3에서도 가족유대, 부모학대, 경비행친구, 중비행친구변인은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전체 독립변인들은 후기청소년들의 가출행위변량의 10.1%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비행친구변인들은 가출행위변량의 7.3%를, 가족·부모변인들은 종속변인의 4.2%를 설명하고 있다. <표 5>의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1과 2를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부모변인과 친구변인의 베타계수 모두 다 청소년가출을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친구변인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가 .073으로 가족·부모변인들의 결정계수 .042보다 훨씬 높으므로 부모요인보다는 친구변인들이 후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잘 설명하는 변인은 부모와 친구변인 양쪽 다이지만 특히 친구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음에 따라 부모요인은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며, 반대로 친구요인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연구가설 1과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에서 〈표 5〉까지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연구가설 1과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부모요인은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중기와 후기로 넘어 오면서 특히 후기로 넘어 오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은 초기보다는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 4〉의 중기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부모요인은 초기의 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더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는 초기와 중기 및 후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가족·부모요인 그리고 친구요인이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각 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몇 가지 통제변인들 또한 청소년 가출을 잘 설명했지만, 그 영향력은 초기와 중기에 나타났고, 후기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연구결과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가족·부모변인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 초기와 중기까지는 가족·부모요인이 비행친구변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고 후기 청소년기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들이 청소년가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부모요인은 초기 청소년들의 가출을 잘 설명하다가 중기와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반면 가출친구가 청소년 자신의 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기보다는 중기와 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강해진다는 연구가설1과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를 다 포함한 전체 회귀분석결과 자존심변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들이 청소년가출을 95% 이상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잘 설명했으며 부모변인과 친구변인을 분리한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와 비행친구 회귀방정식모델의 베타계수들 모두 다 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종속변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이 청소년 가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가출 친구가 청소년 자신의 가출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청소년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2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친구 변인 중에서 경비행친구의 베타계수가 중비행친구의 베타계수보다 높음에 따라 중비행친구보다는 경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자신이 가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 가족유형, 자존감, 긴장요인은 초기와 중기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기청소년들의 가출행위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후기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의 가족형태와 성별 또는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이 높고 낮음, 긴장요인이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가족·부모의 영향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여부에 따라 청소년가출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청소년기동안 어떤 특정한 요인이 일관되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별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난다는 비행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황성현, 2010). 즉, 청소년들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초기와 중기에는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이, 그리고 후기에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가출을 횡단적으로 분석한 이전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등의 각 시기별로 그 원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했으며 연구결과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 청소년기 중에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로 청소년 가출의 주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어떤 일정한 청소년기 시점에서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파악한 이전 선행연구와는 확연히 다른 연구관점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손베리의 비행이론을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 연구결과로 인해 청소년 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이 청소년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한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전체를 관통하는 패널자료가 아니라는 방법론적인 한계점이 있다. 즉 손베리의 상호작용론을 적용하여 각 시기별로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해년도 추출된 표본을 기초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적 조사한 패널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런 자료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가 아닌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론의 부분적 검증에 불과하다. 둘째, <표 3>부터 <표 5>에서 중비행친구변인은 초기를 제외하고 중기와 후기에서 종속변인인 가출변인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중비행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낮을수록 청소년 자신이 가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비행이든 중비행이든 간에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자신의 비행경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청소년가출행위는 청소년비행 중 경비행에 속하고, 경비행친구와의 강한 접촉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비행친구와의 거리를 두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중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청소년 자신의 가출행위와의 관계가 왜 부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다른 통계기법이나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어떤 일정한 청소년기 시점에서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파악한 이전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등으로 나누어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가족·부모요인은 청소년 초기와 중기까지 청소년 가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비행친구와의 접촉 요인은 청소년 후기에 청소년 가출을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 가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청소년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홍세희(2007). 한국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267-294.
- 김준호·박정선(1993). 청소년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가영(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 173-202.
- 박명숙(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85-106.
- 박민선(2008). 청소년 가출빈도와 비행 또래수의 변화추정 및 두 효과 간 인과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pp. 111-139.
- 박현수·김준호(2008).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의 친밀성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 327-356.
- 배문조·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호, pp. 23-35.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철(2009).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발전론적 연구: 손베리 모델의 부분 검증.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pp. 177-204.
- 이현지(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pp. 283-304.
- 정경은·문성호(2008). 청소년가출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1호, pp. 219-241.
- 조학래(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집, 제31권, pp. 172-19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9 한국 아동·청소년 가출실태조사.
- 한상철(2001). 가출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 제11권, 제2호, pp. 29-53.
- 황성현(2006). 낮은 자아통제감, 친구집단요인, 부모요인이 청소년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1호, pp. 129-154.
- 황성현(2008).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3권, pp. 5-29.
- 황성현(2009).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 113-139.
- 황성현(2010).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27집, pp. 81-103.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pp. 47-87.
- Agnew, R.(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Vol. 38, pp. 319-361.
- Hwang, S. H., & Akers, R. L.(2006).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rug use in Korea.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1, pp. 51-69.
- Jang, S. J.(1999). Age-varying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peers on delinquency: A multilevel modeling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Vol. 37, pp. 643-685.
- Thornberry, T. P.(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5, pp. 863-891.
- Thornberry, T. P., Lizotte, A. J., Farnworth, M., & Jang, S. J.(1994). Delinquent peers, beliefs,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Vol. 32, pp. 47-83.
- Thornberry, T. P., Lizotte, A. J., Krohn, M. D., Farnworth, M., & Jang, S. J.(1991). Testing interactional theory: An examination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and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82, pp. 3-35.

ABSTRACT

Interactional Theory as an Approach to Adolescent Runaways : A Partial Test of Thornberry's Theory

Jun, Sin-Hyun* · Kim, Won-Kyung* · Hwang, Sung-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gree to which peer and parental variables affect adolescents' runaways in early adolescence, mid-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The analyses and findings reported here are from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of a sample of 9,75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aken in 2009.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is study generally supports Thornberry's interactional theory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further reveal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family, parental, and peer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pendant variable in the three stage of adolescence, even if peer factors have the strongest effects on adolescent's runaways. The value of R^2 of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family and parental factors is greater than the model which includes peer factors even in the early and mid-adolescence sampling. However, the value of R^2 of the peer regression equation is greater than the family and parental equation in terms of late adolescence. That is, results are partially consistent with Thornberry's arguments. The present research is the first study to test interactional theory on adolescent's runaway behaviors and makes important contributions toward the further utilization of Thornberry's theory in investigating many of the damaging forms of juvenile delinquency which exist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 Words : adolescents' runaways, thornberry, interactional theory, parental factors, delinquent peer factor

투고일 : 6월 8일, 심사일 : 8월 11일, 심사완료일 : 10월 7일

*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